

Excite? 대담한 이름일세

STEREO SPEAKERS
DYNAUDIO
EXCITE X32
★★★★★
£ 1600

장점
훌륭한 수준의 만듦새와 마감, 감동적이며 폭넓은 사운드.

단점
캐비닛보다 크기 않은 바닥판의 스파이크가 색안경적이지는 않다.

총평
스피커보다 CD나 LP의 음질에 더 관심이 있다면 이 스피커가 바로 당신의 스피커다.

시리즈 이름이 'Excite'라. 대담한 발상이다. 'Excite'처럼 다이내믹한 단어를 스피커 이름으로 쓰는 것은 이 신형 Dynaudio에게 확실한 변신을 뜻하면서도 무언가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달 First Test의 Excite X12 북셀프는 Dynaudio를 뭉가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 플로어스탠더는 더욱 인상적이다. 걸만 보고 오판하지 말자. X32는 진정 £1600의 가치를 보여주는 흥분되는 제품이다.

사랑스러운 마감, 내추럴한 사운드

92×17×27cm의 컴팩트한 캐비닛은 스무드한 만듦새에 원목 마감(4가지)은 대단히 비싸 보인다. 트위터와 듀얼 드라이버 생김새가 눈에 거슬리면 그릴로 가릴 수 있다.



Excite X32는 정말로 아심 찬 이름처럼 기대에 부응한다.

스파이크의 바닥판은 캐비닛과 같은 크기로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인체 공학적 편의성은 놀랍다.

제대로 구동하고 토투-인 없이 방 안쪽에 배치하면 X32는 내추럴하고 착색 없는 음악적인 소리를 뿜낸다. Amon Tobin의 'Get Your Snack On'의 공격적이며 템포가 강한 음악은 거침없는 권위감이 담겨있는데 Dynaudio는 편치와 빠른 속도로 저음을 소화하고 개방적이며 산만하지 않은 중

"X32는 내추럴하며 매우 음악적인 소리로 저역의 펀치와 개방적인 중역을 들려준다."

역을 들려준다. 고역도 또렷하고 명료하지만 딱딱함이나 모호함은 찾아볼 수 없다. 노래에 담긴 많은 다이내믹스의 피크를 설득력 있게 재현하며 X32는 모든 정보들을 스무드하게 잘 짜 맞춘다.

정점에 달한 퍼포먼스는 화려하지도 시선 집중을 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 스피커는 처음 듣는 순간 다소 수동적이며 수줍은 듯하지만 시간을 두고 들으면 명료하며 주의 깊은 스피커이다. 녹음을 최대한 신뢰할 수 있게 재생하는 이 스피커는 당신이 스피커에 원하는 것을 정확히 들려주는 제품이다.

ALSO CONSIDER ?

PROAC STUDIO 140

★★★★★
£1440

May 2006

충분히 에이징 하면 기민하고 오락적이며 영리하게 밸런스를 맞춘 퍼포먼스를 들려준다.

WILSON BENESCH SQUARE TWO

★★★★★
£2200

February 2007

가격이 Dynaudio 두 배가 넘지만 1원당 가치가 모두 살아있는 스피커. 이 가격에 더 좋은 사운드의 플로어스탠더를 찾을 순 없을 것이다.

MP3 PLAYER
SANDISK
SANSА FUZE

★★★★★
£ 60 (2GB)

장점
단단하고 스마트한 마감, 깨끗한 인터페이스, 괜찮은 사운드, 확장 가능한 저장 용량.

단점
헤드폰 기능이 떨어진다. 편치나 무게감도 다소 부족하다.

총평
최고의 음향은 아니지만 카드 슬롯,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충분히 어필할 만하다.

Sandisk의 MP3 기폭제

기기 뒷면에 확실한 로고가 없다면 MP3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도 이 제품은 가치가 있다.

이 플레이어는 2GB 하드디스크 외에 4, 8GB 버전과 다양한 마감도 가능하며 SDHC 슬롯으로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다. FM 라디오와 녹음기도 있고 2in 컬러 스크린으로 비디오 및 사진도 볼 수 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버튼을 지닌 매끄러운 기기 사용법은 누워서 떡 먹기다. PC나 Mac에서 파일만 끌어다 넣으면 끝. 인터페이스도 세심히 설계되었고 빠른 스크롤 휠은 빠르게 동작한다.

"SDHC 카드 슬롯은 저장 용량을 늘려준다."

320kbps 버전의 Portishead 'Sour Time' 중 보컬은 디테일하며 친근하다. 다이내믹스도 좋다. 드럼은 소프트 터치로 우리가 선호하는 예리함과 무게감보다는 둥글둥글하다. 번들 헤드폰을 바꾸면 개방적이며 치밀하고 좀더 정확한 사운드를 듣게 된다. 스크린은 동영상 즐기기에 너무 작다. 보기는 좋지만 Apple의 대화면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진다.

번들 헤드폰을 바꾸고 음악을 들으면 즐거움이 가득하다. 동급 최고는 아니지만 많이 뒤지지는 않는다.



깨끗하고 명확한 컨트롤 시스템과 스무드한 에지 설계.